

주일은 즐겁고 귀하고 복된 날 *Lord's Day (Sabbath)*

이사야 (Isaiah) 58:13-14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 항상 계시지만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룩한 성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이러한 공간과 시간은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와 주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의 성전이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We believe that God is always with us – anytime, anywhere. We also believe that God is always with us in special times and in special places and in a special way. When we take a look at the Old Testament, God had used the holy temple as His special place to be with His people. He made it a special time, and in that time He was with them. These places and times of the Old Testament are explained in the church and the Lord's Day in the era of the New Testament. Today, God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each of us in the church – the place – and on the Lord's Day – the time.

또한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표현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그날을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날로 보았습니다. 이날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지냈습니다.

In the days of the early church, they called the day of Jesus' resurrection 'Lord's Day' and kept the day honorable. The early church then renamed the Sabbath as the Lord's Day in ord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 Lord's Day was the Sabbath completed. On the Lord's Day, the early Christians gathered together to worship God – who saved this world – and took communion regularly. They kept the day honorable by seeking to understand God's will, remember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experiencing God's grace and power anew.

하나님은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경홀히 대할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는 삶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God wants to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each of us on the Lord's Day. We can find the living faith by keeping the Lord's Day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Sabbath. The perfection of the Sabbath is available to us through the Lord's Day. The Lord's Day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abbath, which God had commanded us to keep holy. By keeping the Lord's Day honest, it helps us to make ourselves perfect in our Christian faith. That said, how do we keep Lord's Day alive?

첫째,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First, the Lord's Day should be filled with joy.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has been set aside to enjoy the amazing love of God who has saved us and made us His own children.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has been set aside so that we can enjoy the Holy Spirit who works among us.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has been set aside so that we can enjoy the resurrected Jesus who has come representing God's everlasting glory.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has been set aside so that we can enjoy it with God.

억지로 교회에 나가서 조는 날이 아닙니다. 안 나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은 다른 곳에 둔 채, 마지못해 몸만 교회에 나가 있는 의무적인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사귄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즐거운 날입니다.

The Lord's Day is not the day that we are forced to attend church. It would not be right if only our body was in the church and our minds and souls were elsewhere. This is not the attitude that we are not supposed to have for the Lord's Day.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we worship God, get to know Him better, and enjoy His love.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 118:24)라고 했습니다.

We receive genuine delight and joy from not only living in God's kingdom, but also from participating in His work.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we share our delight and joy with Jesus Christ – who is the head of the body, which is the church. Psalm 118:24 says,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구약에서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안식일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며 새롭게 경험하면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In the Old Testament, on the very first Sabbath there was praise and celebration for all the works of God's creation. The Sabbath was the day that the Israelites, while they were still in the wilderness, took delight and rejoiced in the grace of God who had saved them from Egypt. Therefore,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we praise, enjoy, and rejoice in His grace, which saves

us in the name of Jesus and makes us His own children.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we experience His grace and enjoy spiritual rest.

둘째로 주일은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Secondly, the Lord's Day should be kept honorable.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사 58:13,14)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날을 존귀히 여기셨듯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일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Isaiah 58:13-14 says, "...if you call the Sabbath a delight and the LORD'S holy day honorable, and if you honor it by not going your own way and not doing as you please or speaking idle words, then you will find your joy in the LORD..." Just as God made the Sabbath and kept it honorable, we are to keep the Lord's Day, which Jesus gave to us, honorable.

출애굽기 20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Exodus 20:8-10 says,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Six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nservant or maidservant, nor your animals, nor the alien within your gates."

옛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하는 날'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매일을 불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주일의 영적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전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일의 안식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after working hard during the previous six days, the Lord's Day can be a 'blessing day', 'a Jesus' day', and 'a day with Lord'. If someone lives their life unfaithful everyday, they cannot enjoy the spiritual rest of the Lord's Day. If someone lives their life as if they have been fighting against the ways of this world, then they can enjoy the spiritual rest of the Lord's Day.

주일은 세속적 삶에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멈추고, 내가 걸어가던 바쁜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은 많은 세속적 대화를 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주일은 세속적 소음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The Lord's Day should be a day that is with Jesus and is free from our secular requirements. We should stop our secular and busy life and instead, worship God, participate in the church's work in God, and rest in God's grace and love.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we should quiet secular conversations and have pious time with God.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we should listen to God's Word by quieting secular noises.

세 번째로 주일은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Lastly, the Lord's Day should be kept as a day of blessing.

주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사 58:14)라고 하셨습니다.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Jesus gave us His blessing as the Lord of Sabbath. God said to Isaiah, “you will find your joy in the LORD, and I will cause you to ride on the heights of the land and to feast on the inheritance of your father Jacob.” (Isaiah 58:14)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행복한 삶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라는 말씀은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You will find your joy in the LORD’ means that God makes us happy in our life. “I will cause you to ride on the heights of the land” means that God has glorified us. “And to feast on the inheritance of your father Jacob” means that God will accomplish His promise.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고 하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Exodus 20:11 says,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 The Lord's Day is the day that God gives us His blessing. We, by keeping the Sabbath as the Lord's Day, are people in God's special blessing.

우리는 주일을 바로 지킴으로, 주일의 기쁨과 감격적인 생활이 한 주간의 생활로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주일에 얻은 영적 휴식의 새 힘이 한 주간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일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By keeping Lord's Day honest, the delight and inspiration of the Lord's Day should continue for the upcoming week. The new power from our spiritual rest on the Lord's Day becomes our source of power for another week. If we don't experience God's great grace on the Lord's Day, then we can't experience God in the process of our lives.

주일을 바로 지키는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즐겁고 귀하고 복된 날로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ope that you all have living faith by keeping the Lord's Day. I pray that you all become faithful Christians in God by keeping the Lord's Day as a day filled with joy, holiness, and blessings.